

고전 시학에 나타난 의미 중시의 경향에 대하여

정대림*

1. 머리말
2.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
3. 의미 중시의 시평
4.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
5.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 고전 시학에 나타난 시론과 시평, 작시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중시되었던 시의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 의미 중시의 시평,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에서는, 시의 의미 설정의 어려움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외의의 함축미 구현에 노력한 양상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미 중시의 시평에서는 여조에서부터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시학의 전 과정에서 시평의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 시의 의미의 분석과 평가에 따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평가들은,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인의 내면에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다방면에 걸친 학문을 습득하고 세상의 견문을 두루 익히며 사우와 더불어 식견을 채우는 한편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널리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은 다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음 그러한 것들을 작시의 기반으로 작시의 실마리로 삼아 시의 의미 탐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편의 좋은 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핵심어 : 詩學, 設意, 言外意, 含蓄, 의미 중시, 의미 탐색, 작시 과정

1. 머리말

우리 고전 시학의 전개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관점은 보편화된 것이었으며, 오늘날의 한시 연구나 시론과 시평 연구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은 가장 중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한시 중심의 시론과 시평을 포함하는 시에 관한 모든 비평 활동을 뜻하는 고전 시학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시론과 시평, 작시과정을 중심으로 시의 의미를 중시하였던 제반 논의들을 정리하여 그 의미 중시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 한시의 영향으로 한국 한시의 틀이 갖추어졌고, 중국 문학이론의 수용에서부터 우리 고전 시학의 면모가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국의 문학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변용적으로 발전시켜온 우리 고전 시학의 전통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시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논의들이었다.

생각해보면, 한국 한시의 역사에서 우리의 한시가 주력해온 것은 시의 의미의 창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한시는 필연적으로 개념의 시, 정신의 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 한시의 주안점이 시의 의미 탐색에 있었다고 보면, 우리 고전 시학의 전개에서 시론이나 시평을 분석 검토함에 있어서도 시의 의미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시 연구에서 의미 중심의 개념의 시, 정신의 시가 함축하고 있는 깊은 의취를 탐색하고 발굴하는 것이 한시의 창조적 전승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면, 고전 시학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중심의 접근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또한

1)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11면 참조.

한국 한시 연구나 고전 시학연구에서, 시의 형식이나 성률 등을 연구한 일부 업적들을 제외하고는, 시론이나 시평 그리고 작가론이나 작품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적들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까닭으로 의미 지형의 시학이란 관점에서의 연구사 검토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시의 의미는 중국 시학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시의 본원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를 마음이 가는 바그 지향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거나, 시는 마음이 흘러가는 바를 나타낸 것인데 마음에 있으면志가 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고 한 데서 보면,²⁾ 시의 본원에 대한 성찰에서 이렇게 시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孔子(B.C. 551~479)가 『詩經』을 총평하면서 思無邪 곧 생각함에 아무런 사악함이 없다고 한 것도,³⁾ 그것이 작자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거나 독자가 감화되어 귀착되는 지위를 나타내거나를 막론하고 시의 본원을 의미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중국 역대의 시학에서 시는 의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시어의 나열이나 어구의 짜맞춤 등의 표현 문제는 그 다음의 관심사임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

중국의 시학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고려조부터 전개되어온 우리 시학의 현장에서도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그와 같은 논의는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왔다.⁵⁾ 그리하여 조선 중기의 尹春年(1514~87)은 시의 올바른 근본으로 體와 意와 聲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천하고금의 이치인 『中庸』의 三達德인 知 仁 勇이나 『大學』의 근본정신인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三綱領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⁶⁾ 그러면서도 그는 시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더욱 관심을 기울인 것을 알

2) 詩言志 (『書經』, 『舜傳』)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詩經』, <大序>)

3)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 (『論語』, 『爲政』)

4) 詩以意爲主 (『中山詩話』, 『珊瑚鉤詩話』, 『藏海詩話』, 『芬餘客話』 등등)

5) 詩以意爲主 (李奎報, 『白雲小說』)

6) 詩家之所謂正宗者 有三焉 日體也 日意也 日聲也 (중략) 日體日意日聲之於詩家 猶三達德之於中庸也 三綱領之於大學也 (尹春年, <詩法源流序>)

수 있다.

마음은 성정을 거느리는 것이고, 의미는 그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른바 성은 인의예지를 이름인데 그것을 오성이라 하고, 정은 희로애락을 이름인데 그것을 칠정이라고 한다. 대개 오성은 각각 바탕이 있는데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 만약 마땅히 인해야 하는데 의를 내세우거나, 의를 내세워야 하는데 인하게 되면 성을 잃게 된다. 칠정도 각각 쓰임이 있는데 서로 어지럽게 뒤섞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데 슬피한다든지, 슬피해야 하는데 기뻐한다든지 하면 그 정을 잃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성정을 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바른 길을 잃게 되면 어리석고 거짓된 사람이라 이른다. 그런데 유독 작시에 있어서는 비록 성정의 바른 길을 잃는다고 해도 어리석고 거짓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시의 의미가 어리석고 거짓되었다면 그 시는 불만한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⁷⁾

윤춘년은 이처럼 시의 의미는 性과 情을 거느리는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성정의 바른길을 잃지 않아야 불만한 가치가 있는 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리석고 거짓된 의미를 지닌 시는 시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으며, 불만한 가치가 있는 시를 얻기 위해서는 五性과 七情인 인간 성정의 본바탕과 쓰임에 따라 마음에서 바른 길을 찾아 펼쳐서 참된 시의 의미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의 의미는 중국이나 우리의 역대 비평가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의미 중시 시학의 전체 내용의 틀 안에서 우리 역대 비평가들에 의해 특히 강조되어 언급되었던 시의 의미에 관한 논의들을 분석 검토하여,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 의미 중시의 시평,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그 의미 중시의 시학의

7) 愚謂心者統性精者也 意者主張平心者也 所謂性者 仁義禮智之謂也 是謂五性 所謂精者 喜怒哀樂之謂也 是謂七情 蓋五性各有其體 不可相雜 若當仁而義 當義而仁 則失其性矣 七精各有其用 不可相亂 若當喜而哀 當哀而喜 則失其情矣 人於性情之用 小失其常 則謂之愚妄 而獨於作詩 雖失其性情之常 而不謂之愚妄者 何也 其意愚妄 則其詩不足觀矣 (尹春年, 『詩法源流體意聲三字註解』)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는 시의 의미에 관한 논의들 가운데서 세 항목으로 제한하여 검토하는 것이 비록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한시의 주안점이 시의 의미 탐색에 있었고 또한 개념의 시, 정신의 시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시적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러한 제한적 의미의 논의 전개를 통해서라도 의미를 중시하는 우리 시학의 한 단면이나마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미 중시의 경향에 대한 논의 전개에 있어서 우리 시학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학의 자료를 번갈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교문학적 접근으로 그 영향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고, 중국 시학의 토대 위에서 그 시학의 양상들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우리의 시학으로 전개하였던 내용들을 유비관계의 틀 안에서 살펴보기 위함이었음을 밝혀둔다.

2.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

우리 시학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시하였던 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시론의 양상은 設意의 어려움을 피력한 데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李奎報(1168~1241)는, 시는 意를 위주로 하기에 의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어를 짜 맞추는 것은 그 다음인데, 의는 또한 氣를 위주로 삼으며 기의 우열에 따라 의의 심천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는 천성에 딸린 것이어서 배워서 얻을 수는 없고 기가 떨어지는 사람은 시어 다듬는 것을 공교하게 하면서 의를 앞세우지 않는데, 대체로 시어를 아로새겨 다듬으며 시구를 화려하게 꾸미면 시가 아름다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속에 심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만한 것 같지만 다시 씹어보면 맛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⁸⁾

8) 夫詩以意爲主 設意最難 綴辭次之 意亦以氣爲主 由氣之優劣 乃有深淺耳 然氣本乎天 不可學得 故氣之劣者 以雕文爲工 未嘗以意爲先也 蓋雕鏤其文 丹青其句 信麗矣 然中無含蓄深厚之

결국 시는 의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보았기에, 시어를 짜맞추는 등의 표현의 문제는 이규보의 관심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성으로 타고난 기를 바탕으로 심후한 의미가 함축되어 씹을수록 맛이 넘치는 시를 쓰고자 하였던 것이 이규보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물론 이규보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중국시학에서도 흔히 논의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宋의 劉攽(1022~88)은 시는 意를 위주로 하며 꾸며서 표현하는 일은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意義가 깊고 높으면 비록 표현이 평이하다고 해도 뛰어난 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⁹⁾ 위에서 언급한 이규보의 견해와 다르지 않은데, 시대적 차이로 보면 이규보가 유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시 고려와 송의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왕성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유반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만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변용하여 天氣說과 관련지어 나름대로 자신의 시론으로 정리하였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歐陽修(1007~72)는 梅堯臣(1002~60)의 말을 인용하여 시인들이 비록 意를 헤아려 거느리고 나가지만 그 의미를 지어내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¹⁰⁾ 매요신의 造意의 어려움이 이규보에 이르러서는 設意의 어려움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의 시학에서 공히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의미의 설정을 작사에서 가장 힘든 과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杜甫(712~70)의 시가 의미를 앞세운 다음에 지은 시인 까닭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고 하여 시에서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을 주목하기도 하였다.¹¹⁾ 바로 그것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보의 시에서 일을 서술한 것이나 경치를 묘사한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논한 것 각각이 모두 진실되어 그 시들을 읽으면 마치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고 해서 그의 시를 詩史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시의 의미가 참된 내용으로 전달되

意 則初若可觀 至再嚼 則味已窮矣 (李奎報, 앞의 책)

9) 詩以意爲主 文詞次之 或意深義高 雖文詞平易 自是奇作 (劉攽, 『中山詩話』)

10) 聖俞嘗語余曰 詩家雖率意 造語亦難 (歐陽修, 『六一詩話』)

11) 杜詩 意在前 詩在後 故能感動人 (王文祿, 『詩的』)

어야 후세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시에 있어서는 의미의 寄托이 중요하며 그것은 말한 바는 여기에 있으나 그 의미는 저기에 있음을 이르는 것인데, 李白(701~62)의 <子夜吳歌>는 본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閨情을 말한 것이지만 결국은 남편의 정별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¹²⁾ 함축적으로 시의 의미를 설정함으로써 시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언외에 간절한 의미를 확산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좋은 시, 격조 높은 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를 쓰기 위한 과정에서의 의미 설정의 어려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백과 두보의 시를 예시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욱 배가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 시학에서 의미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시론의 양상은 시대를 내려오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는 意를 위주로 하는데 구절과 시구를 단련하면 공교로운 좋은 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거나,¹³⁾ 작사에서 立意 곧 시인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세워야 함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고,¹⁴⁾ 시는 意를 위주로 하는데 그 의는 장수와 같으며 장수가 없는 병사는 오합지졸이 된다고도 하였는데,¹⁵⁾ 이렇게 시에서 시인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구상하는 일을 設意나 命意, 立意, 鍊意, 寄意, 刻意 등으로 나타내면서 그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시학의 전통 가운데서 시는 의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작시 과정에서 設意를 중요하게 인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화 발생 이후 송대의 시학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변용하여 자신의 시론으로 정리한 이규보의 노력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의미 설정의 어려움을 역설한 이규보의 생각은 우리 시학의 흐름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식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徐居正(1420~88)은, 옛 시인들이 의미를 세워 확정하고 시어를 배치하

12) 詩貴寄意 有言在也而意 在彼者 李太白子夜吳歌 本閨情語 而忽冀罷征 (沈德潛, 『說詩醉語』, 권下)

13) 詩以意爲主 又順篇中鍊句 句中鍊字 乃得工耳 (張表臣, 『珊瑚鉤詩話』)

14) 宋人謂作詩 貴先立意 (謝榛, 『四溟詩話』)

15) 詩歌 (중략) 俱以意爲主 意猶帥也 無帥之兵 謂之烏合 (王夫之, 『薑齋詩話』)

고 구사함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은 있으나 요컨대 모두 각각의 궁극의 목적은 올바른 데로 돌아가고자 할 따름이었다고 하여,¹⁶⁾ 의미를 세워 결국은 올바른 시에 표현하고자 하는 立意의 노력을 내세웠다. 그리고 李瀼(1681~1763)은 오직 마음을 써서 활용함이 더 넓어진 까닭으로 세상이 점점 교묘하게 세밀히 살피게 되어 組織과 藻繪가 이르지 못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의 用意에 관심을 기울였다.¹⁷⁾ 한편 丁若鏞(1762~1836)은 “흥이 일면 곧 의미를 헤아리고, 의미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를 쓴다네.”¹⁸⁾ 라고 노래하면서, 시의 의미를 운용하는 運意가 작시의 바탕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 시학의 전개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각각 設意, 立意, 寄意, 達意, 刻意, 用意, 命意, 運意 등의 용어를 통해 시의 의미를 구축하는 일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시의 의미 구상에 힘을 쏟았던 시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設意的 과정에서 존중되었던 시론의 양상 가운데 하나는 시의 의미의 함축성에 바탕을 둔 言外意를 지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언외의의 시론 그 의미 창출을 위한 노력은 시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시어들이 내포적 의미로 어울려 작품 속에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 의미의 함축성은 언제나 시인 비평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언외의의 시세계가 펼쳐진 시들은, 시어들이 외연적 의미의 틀을 벗어나 내포적 의미로 조화를 이루고 말밖의 무한한 의미가 함축으로 전달되면서 여운이 감도는 시로 독자들을 시적 공감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시적 향기를 전해주는 시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언외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리하여 언외의는 헤아릴 수 없는 경치를 눈 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도 언외의 감흥을 내포함으로써 시에 있어서의 끝없는 여운을 나타내는 것이라

16) 古之詩人 立意措詞 雖不同 要皆各臻其極 歸之於正而已(徐居正, 『東人詩話』)

17) 惟其用意恢如 故世漸巧細 組織藻繪無所不至(李瀼, 『星湖僿說』, 권29, 「詩家藻繪」)

18) 興到卽運意 意到卽寫之(丁若鏞, 『與猶堂全書』 1집, 권6, <老人一快事> 六首, 效香仙体, 其五)

고 하였다.¹⁹⁾ 그리고 李齊賢(1287~1367)은 시에 있어서 시어에 언표되어 전달되는 일반적 의미 외에 그것에 함축되는 또 다른 의미인 언외의를 지녀야 좋은 시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언외의 여미를 한 밤에 호젓이 앉았을 때라야 느낄 수 있는 화분에 심은 난초의 향기에 비유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시가 시어에 의해 전달되는 표면적 세계 외에 시 속에 침잠함으로써만 감지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 세계를 함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이와 같은 언외의의 세계, 설의의 과정에서 주목되었던 언외의의 시론은 사실 중국 시학에서는 일찍부터 논의되어온 것이다. 구양수와의 시담에서 매요신은 만약에 의미가 새롭고 말이 잘 되어서 옛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믿는다면 좋는데 반드시 써내기 어려운 경지를 형상해서 눈앞에 있는 것같이 하고 다함이 없는 의미를 함축하여 언외에 나타낸 연후라야 지극한 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¹⁾

또한 그러한 언외의의 지극한 시의 경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 짓는 사람이 마음으로 터득하고 보는 사람은 생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을 말로 지적해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溫庭筠(818~72)의 “달 소리 나는 초가 주막의 달, 사람 발자국 있는 판교의 서리”나, 賈島(779~843)의 “괴이한 새 광야에서 울고, 지는 해에 길 가는 사람 두려워하네.”와 같은 시에는 여행길에서의 괴로움이나 나그네의 시름 그리고 객지에서서의 외로운 마음 등이 언외에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²²⁾

이렇게 시 짓는 사람은 마음으로 터득하고 보는 사람은 생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언외의의 시적 경지가 그들 두 시인의 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시어의 외연적 의미로 드러나 있는 달 울음소리 들리는 주막 풍경, 새벽 서리 내린 길 위에 나있는 사람 발자국, 광야에서 우는 이름 모를 새의 괴이한 울음소리, 지는 해와 길손의 마음 등의 내용들

19)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흥성사, 1979, 66~7면 참조.

20) 김성기, 『이제현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13~4면 참조.

21) 若意新語工 得前人所未道者 斯爲善也 必能狀難寫之景 如在目前 含不盡之意 見於言外 然後爲至矣 (歐陽修, 앞의 책)

22) 作者得於心 覽者會以意 殆難指陳以言也 雖然亦可略道其髣髴 (중략) 若溫庭筠鷓鴣聲茅店月 人迹板橋霜 賈島 怪禽啼曠野 落日恐行人 則道路辛苦 羈愁旅思 豈不見於言外乎 (위와 같음)

이, 이른 새벽 잠도 편히 자지 못한 채 길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고초나, 해 질 무렵 스산한 광야의 풍경에 오늘은 또 어디서 묵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연상되는 나그네의 시름과 외로움 등을 무한히 번져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외연적 의미로 나열된 시어들 속에 나그네의 고초나 시름을 은밀히 숨겨 놓고 독자들로 하여금 내포된 의미, 함축된 의미 그 언외의의 시세계를 마음으로 터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 설정의 과정에서 중시되었던 언외의의 시론은 역대 중국의 시인 비평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는데,²³⁾ 이 언외의의 시론은 우리 시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크게 주목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제현이 언외의에 관심을 두었음을 살펴보았거니와 조선조의 시학에서도 널리 보편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²⁴⁾

서거정은, 시에 능한 사람은 묘사하기 어려운 경물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다함이 없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 밖에 드러낸 연후에야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李仁老(1152~1220)가 천수사 벽에 제시한 시를 두고 길 떠날 친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잠시나마 친구를 이별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 언외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²⁵⁾

또한 任璟(숙종때)은 李荇(1478~1534)의 시가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간절한 회포를 달과 새, 바람과 나뭇가지에 붙여 언외의의 무한한 의취를 얻어내었다고 하였다. 실은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 이행이 “밝은 달아 제발 뜨지 말고, 썰렁한 바람아 너도 불지 말아라. 달이 뜨면 자던 새 놀라 깨고, 바람 불면 고요한 가지 흔들린다.”고 시를 지어 전송하였는

23) 古人爲詩 貴於意在言外 使人思而得之(司馬光, 『續詩話』), 詩有句中無其詞 而句外有其意者(楊萬里, 『誠齋詩話』), 更不刻畫 而有言外之意(王士禛, 『漁洋詩話』), 妙又在語言之外(陳衍, 『石遺室詩話』)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24) 이제현의 언외의에 대한 생각은 주)20 참조. 그리고 조선조 시학에서의 언외의의 시론은 정대립의 『한국고전비평사』(태학사, 2001, 210~43면 참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5) 李大諫仁老 題天水寺壁云 待客客未到 尋僧僧亦無 唯餘林外鳥 款曲勸提壺 古之評詩 以謂詩能者 狀 難寫之景 如在目前 含不盡之意 見於言外 然後爲至 予於此詩見之矣(徐居正, 앞의 책)

데, 중국 사신이 이 시를 칭찬한 이유를 鄭士龍(1491~1570)은 몇 달이나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야 그 묘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 일화와 함께 전개된 시평이다. 대개 이별할 때에는 사물을 보면 감정이 쉽게 움직이게 되는 법인데, 저 달이 뜨면 자던 새가 놀라 깨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움직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별의 회포를 도와 말 밖에 뜻이 담겨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실제 이별의 아쉬움은 은밀히 숨겨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별이 있으므로 해서 생겨난 안타까운 정을 달이 뜨면 놀라 깨게 될 새와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에 비유하여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바로 언외의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지극한 경지를 이행의 시에서 읽어내었던 것이다.²⁶⁾

그리고 洪萬宗(1642~1725)은, 무릇 시를 지을 때는 의미가 말 밖에 있어서 함축되어 여유가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말의 의미가 모두 드러나고 솔직하게 말해버려 함축이 없다면 비록 그 말의 수식이 굉장하고 화려하며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언외의의 함축미의 구현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한 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넓고 깊게 확산시키기 위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임을 밝혔다.²⁷⁾

申景濬(1712~81)은, 이백의 「公無渡河」 시에 “머리 풀어 헤친 저 늙은이 미치고 어리석네, 새벽에 어찌자고 물에 뛰어 들려는고.”라고 하였는데, 시구에 한없는 위난의 의미가 말 밖에 넘쳐흐른다고 하였다.²⁸⁾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고 건너가기 어려운 강에 뛰어들어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님을 못내 슬퍼하는 정이 이백의 신묘한 수법으로 말 밖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고 본 것이다.

26) 華使(중략) 及其還也 諸公以詩送之(중략) 華使 皆不許可 獨容齋絕句 明月莫須出 天風休更吹 月出有驚鳥 風吹無定枝 華使稱賞不已 湖陰竊怪之 及還朝 沈誦此句數月 然後 始知其妙 蓋臨別詩 觸物易感 彼月出而鳥驚 風吹而枝動 俱可以助離懷有言外之意 華使之獎 蓋以此也 (任環, 『玄湖瑣談』)

27) 凡爲詩 意在言表 含蓄有餘 爲佳 若語意呈露 直說無蘊 則雖詞藻 宏麗侈靡知詩者 固不取矣 (洪萬宗, 『小華詩評』 上)

28) 以古樂府 公無渡河言之(중략) 獨李白能得此例(중략) 彼髮之叟狂而癡 清晨臨流欲奚爲(중략) 其無限危難之意 溢於言外 (申景濬, 『詩則』)

그런가 하면 李德懋(1741~93)는, 자신을 전송하면서 지은 “확 트인 가을 하늘 술 들기도 좋은데, 깊은 정 떨치고서 어찌 그리 서두는가. 맑은 햇살 실바람 불어오는 시냇머리에 서서, 웃으며 단풍잎 부여잡고 돌아서길 망설이네.”라고 한 시를 보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며칠 동안의 만남에서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에 서로 웃는 얼굴이긴 하지만 뿌리치고 떠나야 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보내기 싫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이나 모두 선뜻 발길 돌리지 못하는 석별의 정이 가슴 가득 전해지는 그 시를 보면서, 석별의 정이 너무나 연연하여 서운해 하고 무료해하는 의미가 말밖에 넘쳐나고 있다고 하여 표현해 놓은 시어로는 다 나타내지 못한 아쉬운 작별의 정이 끝없이 번져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⁹⁾ 서운하고 아쉬운 이별의 정을 가을 하늘, 술, 맑은 햇살, 실바람, 시냇머리, 단풍잎 등에 기탁하여,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서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넘치는 이별의 시정을 무한한 의미로 담아내었다고 느꼈던 것 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중국 시와 시학의 수용과 변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개념의 시, 정신의 시가 바탕이 된 의미 지향의 우리 시학의 전개 과정에서 설의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시 의미의 함축성에 주목하여 언외의의 시세계를 중시하였던 시론의 양상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하여 의미 설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언외의의 함축미 구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 고전 시학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시론의 양상들 가운데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ww.kci.go.kr

29) 歲丙申秋 余與朴在先會心溪 于潮村宗人和仲家 淹留數日 余將先歸 在先與心溪 送我于溪頭 各賦詩 心溪詩曰 秋空寥廓好含盃 拂袂高情爲底催 晶日慢風溪口路 笑攀黃葉且歸來 惜別戀戀 惆悵無聊之意 溢於言外 (李德懋, 『清脾錄』, 권2, <心溪>)

3. 의미 중시의 시평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설의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언외의의 함축미를 추구해온 우리 시인 비평가들이 시평의 실제에서는 의미 중시의 관점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이규보는 시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구상하는 설의의 어려움을 역설하였는데, 시의 평가에서도 역시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규보는 「違心詩戲作」 12구를 짓고 나서, 대체적으로 세상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시의 내용과 같은데 작게는 일신의 영화롭고 매마르고 고생스럽고 즐거운 일이나 크게는 집안과 나라의 편안하고 위태하고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일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으니, 이 시에서는 비록 그 작은 것을 말했으나 그 뜻은 진실로 큰 것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⁰⁾ 여기서 이규보는 시평의 중심을 시의 의미 파악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예나 이제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 얼마나 되겠는가? 실없이 희롱으로 쓴 시라고 題하면서 일신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소재로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노래하였지만, 실제로는 집안과 나라의 큰일에 비유하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규보는 일신상의 작은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시의 의미를 무한히 확장시켜 집안과 나라 일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시평 전개의 바탕에 중국 시학의 출발 단계에서 보여준 孔子의 시관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자는 尙文정신에 바탕을 두고 시의 현실성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시는 도덕적 의지 또는 감정을 감흥시키고, 풍속의 성쇠를 관찰하게 하며,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학문과 덕행을 힘써 닦아나가게 하고, 지배층의 정치를 풍자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깝게는 어머니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임금을 섬

30) 余嘗有違心詩十二句 (중략) 大抵萬事之違於心者類 如是 小而一身之榮悴苦樂 大而家國之安危治亂 莫不違心 拙詩雖舉其小 其意 實在於喻大也 (李奎報, 앞의 책)

기는 도리를 시에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시로써 새나 짐승, 풀, 나무들의 이름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³¹⁾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교육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됨이 溫柔敦厚하면 詩教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하였다.³²⁾

이렇게 보면 공자는 시가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 지도층에 대해 풍자하며 교육의 수단으로 사람을 교화한다고 하였다. 정치와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시의 기능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의 의미에는 그렇게 興觀群怨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事父 事君의 내용과 함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지닌 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람 됨됨이를 온유돈후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치의 득실을 바로 잡으며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가까운 것이 없다고 하면서 先王들이 시로써 부부의 도리를 바로잡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이루어주며, 인륜을 두텁게하고, 민풍의 교화를 아름답게 해나가고, 풍속을 선한 데로 옮겨가게 하였다고 한 『詩經』 <大序>의 내용과도 통한다.³³⁾ 바로 시가 개인의 덕성에 영향을 끼쳐야 하며,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을 반영해야하고, 사회악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의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공자의 시에 대한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孟子(BC.372~289)는, 그 사람의 시를 외우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서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이로써 그 세상을 논할 수도 있다고 하여,³⁴⁾ 인간 삶의 표현이며 인생관 세계관 등의 반영이기도 한 시의 의미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파악하게 하는 데에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를 설명하면서 문자에 얽매어 辭句의 의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사구에 구속되어 시인의 뜻을 해쳐서

31)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論語』, 「陽貨」)

32)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禮記』, 「經解」)

33) 故 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 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詩經』, <大序>)

34)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孟子』, 「萬章」 下)

는 안 되며,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마음속의 생각으로 시인의 마음 그 작가정신의 실체에 다가가야 한다고도 하였다.³⁵⁾ 이는 객관적인 시 연구나 이해의 방법은 아니지만 주관적 경험을 통하여 시인의 마음에 직통함으로써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맹자도 시의 이해와 평가에 시의 의미가 중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은 朱子(1130~1200)에게도 이어져 있는데, 그는 무릇 시의 말이 착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常道를 벗어난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시의 쓰임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정의 바른 것을 얻게 하는 데에 돌아갈 따름이라고 하였다.³⁶⁾ 결국 시의 의미는 성정의 올바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우리 시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시의 근본이 부자·군신·부부의 윤리를 세우는데 있으며, 그 다음은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³⁷⁾ 또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며, 찬미하고 풍자하며 권선징악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라고 하였다.³⁸⁾ 정약용은 이렇게 시의 근본과 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의 의미에 담겨야 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자 이후 중국 시학의 영향을 이어내린 우리의 고전시학에서도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그러한 시의 의미에는, 시의 현실성에 바탕을 두면서 개인의 덕성을 연마하여 온유돈후한 성정의 올바름을 얻게하고, 정치적으로 풍자하며, 사회악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시의 의미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시가 아니라고까지 하였으니, 시에는 그러한

35) 說詩者 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是爲得之 (위의 책, 上)

36) 凡詩之言 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 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論語』, 「爲政」의 '思無邪'라는 문구의 集註 내용이다.)

37) 凡詩之本 在於父子君臣夫婦之論 (중략) 其次憂世恤民 (丁若鏞, 앞의 책, 권21, <示兩兒>)

38)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詩價俗 非詩也 不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위의 책, <寄淵兒>)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강조한 셈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重道輕文 정신의 바탕위에 성정 순화와 풍교의 교훈의 측면에서 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던 시인 비평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도경문 정신의 핵심은 중국 시학에서 문이 도를 신는 그릇이라고 판단한 데서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³⁹⁾ 그리하여 우리의 시학에서도 문장이 도를 신는 그릇이라는 견해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⁴⁰⁾ 문장을 도가 가득찬 그릇이라고 하는가 하면,⁴¹⁾ 문장은 도를 근본으로 하는데 도의 偏正에 따라 문장도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등등의⁴²⁾ 견해를 보여 그것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우리 문인들의 보편적인 문학관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일컫는 載道の 道가 유학의 도를 지칭한다는 것이 통념이지만, 문장에 나타난 도의 의미를 확장시켜 일반적으로 작품에 표현된 작가정신의 총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許筠(1569~1618)이 三代의 六經인 성인의 책과 황제와 노자 및 제자백가의 글들이 모두 도를 논한 것이어서 그 문장이 깨우치기 쉽고 또한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한 글에서 보다시피,⁴³⁾ 작가가 표현해낸 작가정신의 정수들이 모두 道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작가 정신의 정수로서의 도가 작품의 의미로 작품에 표현되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적 문학관의 흐름 속에서 재도의 도는 여전히 유학의 도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그러한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시인 비평가들이 시의 본질을 성정 순화와 풍교의 교훈에서 찾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시인들의 시정신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유학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볼 때, 그들이 시 속에 담고자 하였던 도는 성정 순화와 풍교의 교훈의 바탕에

39) 文所以載道也(周敦頤, 『周濂溪集』, 권6, 「通書」2, <文辭>)

40) 文者 載道之器(南公轍, 『金陵集』, 권10, <與沈釋教象奎書>)

41) 夫文章器也 道盛乎器者也(徐命膺, 『保晚齋集』, 권6, <答李夢瑞獻慶書>)

42) 文章本於道德 道有偏正 而文亦隨之(洪良浩, 『耳溪集』, 권16, <御定八家手圈跋>)

43) 三代六經聖人之書與夫黃老諸子百家語皆爲論其道 故其文易曉而文自高雅(許筠, 『惺所覆韻藁』, 권12, 文部9, <文說>)

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가 性情의 표현이고 風敎를 지향하는 것임은 중국 시학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내려 온 것이다. 시는 마음이 흘러가는 바를 적은 것으로, 마음속에 있으면 志라고 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되는데 情이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 시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⁴⁴⁾ 시는 性情을 읊는 것이라고⁴⁵⁾ 언급하는 등의 내용 전개에서 성정과 그 순화에 관심 기울인 그들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風으로써 움직여나가고 敎으로써 화해 나가는⁴⁶⁾ 곧 백성을 강풍으로 움직여 어질게 다스리고 백성을 착하게 이끌어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도록 가르쳐 변화시킨다는 데서 비롯된 風敎의 중요성은 결국 앞에서 언급한 공자의 생각 곧 온유돈후한 詩敎가 실현되고 성정이 순화되어 민중의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 시학의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된 효용성에 바탕한 시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국 시학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학에서도, 시는 성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서,⁴⁷⁾ 시가 성정에서 나오지 않거나 풍교에 관계되지 아니하며 선이건 악이건 사람을 권장하거나 징계할 것이 못된다면 모두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고,⁴⁸⁾ 시는 풍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지 사물이나 경색을 읊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⁴⁹⁾ 시는 교화하는 것이니 힘써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⁵⁰⁾ 등에서처럼, 시의 본질을 성정 순화와 풍교의 교훈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들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를 실어 전달하고자 하는 제도적 문학관이 보편화된 여건에서, 성정 순화와 풍교의 교훈을 시의 의미로 설정하여 독자를 시교가 이루어진

44)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詩經』, <大序>)

45) 詩者 吟詠性情也(嚴羽, 『滄浪詩話』)

46) 風以動之 敎以化之(子夏, 앞의 글)

47) 詩以道性情(李宜顯, 『陶谷集』, 권27, 「雜著」)

48) 其所作 苟非發於性情 而關於風敎 善與惡 不足以勸懲人 則皆在所不取(成三問, <八家詩選序>, 『東文選』)

49) 詩關風敎 非直詠哦 物色耳(柳夢寅, 『於于野談』)

50) 詩者敎也 務在達意(李漢, 『星湖先生全集』, 권50, <石隱集序>)

은유돈후한 풍속으로 이끌고자 하였던 시인들의 지향은 고전 시학의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면서 시의 평가에서도 시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시평의 실제에서 사용된 비평 용어들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물론 시의 의미는 평자들에게 의해 각양각색으로 평가되겠지만, 일단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의 범주 안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용어들을 살펴 정리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됴됨이를 일컫는 意格이나, 시 또는 시구에 나타나는 시 의미의 경지나 경계를 뜻하는 意境은 시에 나타난 의미의 전체적인 격조나 경지를 판단할 때 활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시의 방법적 측면에서 立意는 시 또는 시구에서 시인이 나타내려는 의미를 세워 확정하는 것을 뜻하고, 設意는 시인이 나타내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의미를 구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寄意는 시인이 나타내려는 의미를 시의 어느 부분에 의지하듯 부치는 것을 뜻하고, 刻意는 시인이 표현하려는 의미를 조각하듯 새기고 다듬어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鍊意는 시인이 나타내려는 의미를 쇄를 불에 달구고 식히고 두드리며 연마하듯이 적절한 의미를 이루어내기 위해 단련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넓은 뜻으로 시에 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리어 쓰는 用意와 이름 지어 부치듯 시인의 생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命意를 들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은 시작법에서 시인이 시의 의미를 어떻게 활용하여 표현하였는가를 평가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평의 실제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言遠而意深, 語意雄深, 意態老健奇絕, 含蓄深厚之意, 含蓄不露之意 등등 시 의미의 이모저모를 감상 품평한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⁵¹⁾ 이외에도 시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시평에 임한 용어들은 시인

51) 정요일, 「문학 본질론류 용어로서의 의와 기의 개념」,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511~9면 참조)

이나 비평가들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실로 다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시평의 실제에 사용된 이러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시평의식이나 작가론, 작품론 등의 시평의 전개 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여 시평에 임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시학에서 시론을 분류한 경우에서도 보면, 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本原, 法則, 識解, 命意, 造句, 練字, 用事, 含蓄, 避忌, 品評의 10항목에서 모두 1307則의 시론을 모아놓았는데, 이는 전체 내용이 體와 聲을 포함해 22항목에서 2011則의 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중심의 시론의 내용이 6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그만큼 중국 시학의 경우에도 시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시론과 시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한시가 개념의 시, 정신의 시의 틀 안에서 시의 의미 창출에 노력해왔음을 생각할 때, 우리 시학의 전개에서 體와 聲에 대한 논의에 비해 시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시의 의미를 중시하고 그 의미 탐색에 주력한 시평의 양상은 여조 이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시평 전개의 주조를 이루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몇의 시평의 예를 찾아 직접적으로 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친 시평 내용의 중요한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崔滋(1188~1260)는 시를 평가함에 있어서 먼저 氣骨과 意格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辭語와 聲律로 한다고 하였다.⁵³⁾ 또한 시문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氣는 性에서 발하고 意는 氣에 의지하며 말은 情에서 나오므로 情이 곧 意라고 하였다.⁵⁴⁾ 결국 최자는 인간 性情의 표현인 시의 본바탕을 意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才가 情을 이기면 아름다운 의미는 없으나 말은 오히려 원숙하고, 情이 才를 이기면 말은 경솔하고 촌스러우나 아름다

52) 朱任生, 『詩論分類纂要』(臺灣商務印書館). 본문의 내용이 비록 한 편의 시론 분류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국 시학의 전체적 흐름을 짐작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3) 夫語詩者 先以氣骨意格 次以辭語聲律(崔滋, 『補閑集』, 권下)

54) 詩文以氣爲主 氣發於性 意憑於氣 言出於情 情卽意也(위의 책, 권中)

운 의미가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情과 才를 아울러 얻은 뒤에라야 불만한 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⁵⁵⁾ 위에서처럼 情이 곧 意라고 본다면, 才는 시어를 다듬는 표현 기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자는 불만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의미와 원숙하면서 경솔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시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잘 다듬어진 시어와 표현기교도 결국은 아름다운 의미를, 그 시의 본바탕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최자는 시평에 있어서 시의 표현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시평의 실제에도 그러한 점은 잘 나타나 있다.

최자는, 李知深의 시 “하늘과 바다 끝이 없으니, 아득하니 볼수록 끝이 없네. 사방 천리가 다 보이고, 6월인데 9월 바람처럼 서늘하네. 그 묘함 그림으로도 그럴 길 없고, 글로도 제대로 표현할 길 없네. 다만 날개가 돌친 듯, 내 몸 허공에 떠 있는 듯하네.”를 두고 사람들이 시어가 애써 다듬은 흔적이 없고 기상이 호탕하며 의미가 활달하다고 평가하였음을 밝히고, 각각 시어 10자 가운데서 ‘無際’와 ‘不窮’, ‘望不窮’과 ‘千里目’의 경우처럼 시어들의 의미가 서로 중첩된 듯하지만 읽다보면 중첩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없다고 하여⁵⁶⁾ 시평의 실제에서 의미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鄭知常(?~1135)의 시 “돌머리에 선 소나무는 한 조각 달에 늙어있고, 하늘과 구름은 천 점 산에 낮았네.”를 두고, 시의 의미가 청아하고 절묘함을 사랑하여 때로 읊으며 즐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와 시적 분위기가 비슷한 변산의 不思議房 뒤 봉우리에 올라 그 묘경을 실제로 느끼고 나서야, 정지상이 이루어낸 득의의 경지를 이해하고 그 시의 의미가 진실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⁵⁷⁾ 최자는 이렇게 의미 중시의 시평에 이어

55) 夫才勝其情 則雌無佳意 語猶圓熟 情勝其才 則辭語鄙靡而不知 有佳意 情與才兼得 而後其詩有可觀(위와 같음)

56) 李學士知深 題豐州城頭樓云 天與海無際 茫茫望不窮 四方千里目 六月九秋風 圖畫應難妙 篇章豈得工 只疑生羽翼 身在大虛中 時人以此聯 言不雕鑿 而氣豪意豁 雖然十字中 言無際 又言不窮 或上言望不窮 下言千里目 似乎意疊 而讀之 不知有相疊之意者(위의 책, 권上)

57) 鄭舍人知常 題八尺房云 石頭松老一片月 天末雲低點點山 予嘗愛其辭意清絕 時時吟翫 及爲

위의 시와 유사한 시적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여 이해함으로써 정지상이 창출한 시세계에 접근하여 시 의미의 진실됨을 터득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자는 『補閑集』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여 시평에 임한 시화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한편 李濟臣(1536~84)은, 金時習(1435~93)이 서거정의 청으로 <姜太公釣魚圖>에 “비바람 스산하게 낚시터를 스치고, 위수의 고기와 새는 이미 세속의 일 잊은 듯. 어찌하여 늘그막에 풍운의 장수 되어, 백이·숙제로 하여 금 고사리 캐다 굶어 죽게 하였는가?”라고 제시하였는데, 그 시에는 풍자하는 의미가 나타나 있어서 서거정이 보고 한참 잠자코 있다가 “그대의 시는 바로 나의 죄목이요.”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다.⁵⁸⁾ 결코 역사에 무심할 수 없었던 지식인의 자세로 김시습은 지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추상하며 姜太公과 伯夷叔齊의 고사를 用事하여 당대의 세상 현실을 풍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그림이 서거정에게는 어울리지 않음을 드러내었기에 그 시의 풍자적 의미가 자신의 죄목이라고 하며 서거정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는 것이다. 이제신의 시 내용의 풍자적 의미에 주목하여 시평에 임했음을 보여준 예이다.

그리고 柳夢寅(1559~1623)은, 金安老(1481~1537)가 東湖에 保樂堂이라는 정자를 짓고 申光漢(1481~1555)에게 시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시에 기롱하고 풍자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각 연이 지니고 있는 풍자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그 시의 글귀마다 깊은 뜻이 있어서 천년 뒤에도 군자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⁵⁹⁾ 이처럼 유몽인은 시구마다 부여된 의미를 분석한 다음 그 감상의 결과로 신광한의 시가 전체적으로 기롱과 풍자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의 의미를 중시하여 시를 평가하는

全羅道按廉 當二月生明 登邊山不思議房後峰 傍有老松攬天 新月隱映 下望平原 際天衆山 如
灸注尖抹雲烟 忽憶鄭公詩 沉吟咀嚼 以爲不到此境 安知鄭公得意處也 (위와 같음)

58) 金悅卿 落拓不遇 詩文 極高 徐達城 嘗一邀致 出姜太公釣魚圖 請題 卽書一絕云 風雨蕭蕭拂
釣磯 渭川魚鳥已忘機 如何老作鷹揚將 空使夷齊餓采薇 其詩有諷意 達城見之 默然良久 曰 子
之詩 吾之罪案也 (李濟臣, 『清江詩話』)

59) 近世 奸臣金安老 構新亭于東湖 扁曰保樂堂 求申企齋光漢詩 企齋 辭不獲 贈詩 (중략) 其詩
多含譏諷 (중략) 此詩 句句有深意 千載之下 可以暴白君子之心也 (柳夢寅, 『於野談』)

전형적인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申欽(1566~1628)도 시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핵심을 찾아 평시에 임했는데, 林億齡(?~1568)의 절구가 세상을 흘겨보는 호방한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하였고, 鄭澈(1536~93)의 시 末句가 역시 기발하여 의미와 운치가 매우 좋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黃廷或(1532~1607)의 시구가 뜻이 매우 격렬하다고 하는 등으로 시와 시구의 의미 파악과 분석에 집중하여 시를 평가하였던 것이다.⁶⁰⁾

한편 許筠은 李穡(1328~96)이 고려 말 어려운 처지에서 지은 시에 스스로 때를 잘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의미가 나타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자신을 비롯하여 아들들까지 귀양 가고 鄭道傳(?~1398)을 비롯한 문인들까지 자신을 등지자 지은 시에는 시 첫머리에 스스로 아끼고 자부하는 자궁한 말은 있으나 의미는 대단히 거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⁶¹⁾ 허균 역시 이렇게 시의 의미를 중시한 평시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任璟도 기묘사화를 일으킨 沈貞(1471~1531)의 4대손 심노가 쓴 시를 두고, 대개 그 조상의 잘못을 누우치는 끝없는 한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⁶²⁾ 그 역시 시의 의미에 바탕을 두고 시를 평가하는 데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익은 金克己(고려 명종때)의 <皇龍寺>시에 대하여, 시가 외율만하며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솜씨도 기이한데 대개 세속을 분개하고 미워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작시상의 命意하는 솜씨가 기이하다고 하면서 하늘에 부르짖어도 통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된 시구를 얻어낸 시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시를 아는 자라야 제대로 그러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³⁾ 시

60) 林石川億齡 (중략) 嘗詠其一小絕 (중략) 其脾睨豪橫之意 可見 鄭松江 (중략) 又有贈人詩末句 (중략) 亦秀拔 意致自好 黃芝川廷或 深於文章 其詩句 (중략) 意甚激烈 (申欽, 『晴窓軟談』)

61) 文靖 流竄于外 子種學種善 俱譎遠 而門人鄭摠鄭道傳 反公 不有餘力 公作詩 (중략) 蓋自傷其遭時不淑也 首句可矜 而意則甚倔 (許筠, 『惺叟詩話』)

62) 沈貞 作己卯土禍 (중략) 其四代孫魯 逍遙亭 感古詩一聯 (중략) 蓋追其先愆 有無限歎慨底意 (任璟, 앞의 책)

63) 比篇可誦 命意又奇 蓋憤世疾俗之作也 貴勢崇高 人不敢那 而貧賤固窮 反受其毒 至凡骨失路

구 하나 하나의 의미와 시 전체의 의미까지 살펴 시평에 임함으로써 의미를 중시하면서 시를 평가하였던 이익의 시평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고려조의 이규보와 최자의 시평에서부터 조선조 후기 이익의 시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학의 전 과정에서 시의 의미 분석과 평가에 주력한 시평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4.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

의미 지향의 시학 양상을 시론과 시평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실제 작시 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더듬어 찾아가는 시인들의 노력에 대한 비평가들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시 과정은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가 하는 주제 설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적 주제 곧 시의 의미를 찾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 탐색의 과정이 곧 작시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작시에 있어서 일정한 과정이나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를 탐색하여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한 다음 내용의 전개나 표현 형식 등의 구성을 생각하여 구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바로 시 창작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를 쓰려고 하는 마음, 쓰고 싶어지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가 하는 의미 탐색의 과정을 지나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구상의 단계를 거쳐 시 창작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한 시 창작에 있어서 우리 비평가들은 작시 과정의 첫 단계라고 생각되는 의미 탐색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개념의 시, 정신의 시를 지향했던 시학적 여건 속에서 시 의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이규보는 작시 과정에서의 의미 탐색에 주목하였다.

이규보는 이렇게 “시 짓기가 무엇보다도 어려우니, 말과 뜻이 함께 아름답

다워야 하네. 함축된 뜻이 진실로 깊어야, 음미할수록 맛이 더욱 알차네. 뜻이 서도 말이 원만하지 못하면, 난삽하여 뜻을 전하기 어렵다네. 그 중에 뒤로 여겨도 될 것은, 아로새겨 곱게 꾸미는 것일세. 꽃 담고 고운 것을 어찌 꼭 마다하리, 이 또한 사뭇 정신을 써야 한다네. 꽃을 잡느라 열매를 버리니, 이로써 시의 본래 뜻을 잃는다네.”⁶⁴)라고 작시의 어려움을 노래하면서, 시의 의미가 시어와 함께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미할수록 맛이 알찬 함축된 의미와 원만한 말로 전해지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의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어를 아로새겨 곱게 꾸며서 꽃담고 고운 시로 표현하는 일은 의미 설정 다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의미의 아름다움이 말의 아름다움보다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표현의 아름다움에 신경 쓰느라 시 본래의 아름다운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탐색하여 시의 의미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상하는 일이 표현 방법 등의 구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이규보는 분명하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작시 과정에서 표현보다 의미를 앞세우는 이러한 생각은 중국 시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白居易(772~846)는 시를 쓸 때는 마땅히 정밀하게 탐색하여야 하는데, 말은 남아도는데 그 속에 담아내는 지혜는 이미 바닥이 나버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말은 다함이 있어도 의미는 멀리 번져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⁵) 작시 과정에서는 마땅히 정밀한 의미 탐색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말은 다했어도 의미는 다하지 않는 언외의의 함축미를 얻는 데에도, 의미의 탐색이 바탕이 됨을 일러준 것이라 하겠다.

역시 唐의 徐寅도, 시를 지으려면 반드시 탐색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시구를 얻기 전에 먼저 시의 의미를 형상에 앞서서 가다듬고 형상이 시의 의미를 따라 생겨나게 해야 뛰어난 시인이 된다고 하여, 뛰어난 시인이 되는 길은 시의 의미 탐색에 주력하는 것임을 밝혀놓았다.⁶⁶)

64) 作詩尤所難 語意得雙美 含蓄意苟深 咀嚼味愈粹 意立語不圓 澁莫行其意 就中所可後 雕刻華艷耳 華艷其必排 頗亦費精思 攬華遺其實 所以失詩旨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 <論詩>)

65) 爲詩宜精搜 不得語剩而智窮 須令語盡而意遠 (白居易, 『文苑詩格』)

66) 凡爲詩須搜覓 未得句先須令意在象前 象生意後 斯爲上手矣 (徐寅, 『雅道機要』)

宋代의 魏慶之는, 작시에는 반드시 시인의 생각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며, 시의 의미가 바로 정해지면 시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연후에 운을 골라 사용하면 마치 종을 부리듯 시를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⁶⁷⁾ 이는 곧 의미를 세우고 구상한 다음 표현 기교나 體나 聲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때, 역시 작시 과정에서 시의 의미를 설정하여 시인의 생각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중국 시학에서도 작시 과정에서 의미의 탐색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여조 이래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시학에서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洪奭周(1774~1842)는, 시는 氣에서 나오고 情에서 나타나며 기는 하늘에서 나오고 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하늘과 사람이 묘하게 감응하는 것이 시에 앞서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⁶⁸⁾ 결국 시인은 작시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기상을 갈고 닦는 것은 물론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정서의 함양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정서의 감응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수사나 표현에만 치중하는 작시 태도를 비판하였는데, 시를 氣에서 구하지 않고 辭에서 구하며 情에 맡기지 않고 수식에만 전념하여 자연의 소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⁶⁹⁾ 홍석주는 이렇게 기와 정,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여 조화를 이룬 시의 의미 그 자연의 소리를 시에 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작시 과정에서, 시구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나 화려한 수식 그리고 조탁에 의존하는 수사나 표현 기교 등의 문제 보다, 하늘과 인간의 조화로 빚어내어 자연스럽게 하늘의 움직임이 드러나거나 인간 세상의 진실이 묻어나는 시의 의미를 탐색하여 담아내는 것을 더욱 중시하였던 것이다.⁷⁰⁾

시의 의미 탐색 과정에서 金祖淳(?~1831)은, 시를 짓기 위해 고심하면 생각이 깊게 되고, 생각이 깊게 되면 이론이 해박해지며, 이론이 해박해지

67) 作詩必先命意 意正則思生 然後擇韻而用 如驅奴隸 (魏慶之, 『詩人玉屑』, 권6)

68) 夫詩奚出乎 出於氣 奚發乎 發於情 氣出於天 情出於人 天人之妙感 莫是先焉 (洪奭周, 『淵泉集』, 권24, <原詩>, 上)

69) 不求諸氣而求諸辭 不任其情而滋其文 不得乎其自然之聲 (위의 책, <原詩>, 中)

70) 雕琢者 必喪其實 (위의 책, <原詩>, 下)

면 언어가 새로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가 새롭게 되고서도 중지하지 않고 노력하면 공교하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노력을 그치지 않으면 귀신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고 조화를 옮겨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⁷¹⁾ 이는 작시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吟苦→思深→理該’의 단계는 시 의미의 구상과 탐색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어서 표현의 단계인 ‘語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 좋은 시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김조순은 시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에 걸맞은 표현을 구사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간다면 귀신도 두려워하게하고 자연의 조화를 옮겨 나타낼 수 있는 시의 의미를 창출하여 비로소 좋은 시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좋은 시를 쓰기 위한 과정에서 의미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시를 쓰려면 먼저 경전을 읽어 학문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 과거의 역사 문헌들을 섭렵하여 치란홍망의 근원을 알아내는 한편 실천적인 학문에도 힘써 선배들의 경계에 관한 저서를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치며 만물을 보호 발육시키는 사상을 지녀야만 바야흐로 글 읽는 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된 연후에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뜬 저녁 그리고 짙은 그늘이나 보슬비 내리는 때를 만나면 그 서려 있던 감흥이 솟아나고 생각이 표연히 떠올라 자연스럽게 읊조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천지자연의 소리로 유창하게 발현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 세계의 생동하는 경지라고 하였다.⁷²⁾ 이렇게 작시의 길에서 내적으로 축적된 학문과 백성을 위한 경세제민의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쓰고자 하는 시의 의미를 탐색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동하는 시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

71) 夫吟苦則思必深 思深則理必該 理該則語必新 新而不已則工 工而不已 則可以慳鬼神 而移造化矣 (金祖淳, 『樞臚集』, 권16, <書金明遠研讀園未定稿後>)

72) 必先以經學立著基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亂之原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有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如是然後或遇煙朝月夕 濃陰小雨 勃然意觸 飄然思至 自然而詠 自然而成 天籟瀏然 此是詩家活潑門地 (丁若鏞, 앞의 책, 권21, <寄二兒>)

던 것이다.

이는 중국 시학의 경우 葉燮(1627~1703)의 생각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시를 짓는 사람은 앞서서 반드시 시의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의 기반이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마음이 있으면 성정과 지혜, 총명, 재주, 변별력 등이 거기에서 실려 나와, 만나는 일에 따라 마음이 생기고 생겨난 마음을 따라 의미가 성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⁷³⁾ 이렇게 작시의 기반을 마음에서 찾고, 거기에 실리는 성정, 지혜, 총명, 재주, 변별력 등이 곧 기반의 핵심 요소로 시의 의미 탐색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하였으니, 위의 정약용의 생각과 멀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淸의 何世璵도, 시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많이 읽어 氣를 기르고 명산대천을 두루 다녀서 眼界를 넓히며 마땅히 이름 있는 스승과 유익한 벗을 늘 가까이 하여 식견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여,⁷⁴⁾ 작시 과정에서 의미 탐색에 앞서서 多讀, 多歷, 多親으로 기를 기르고 안계를 넓히며 식견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역시 정약용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작시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는 앞에서 인용한 시에서 ‘興到→運意→意到→卽寫’의 작시 과정의 단계를 제시하였던 것이다.⁷⁵⁾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곧 의미 탐색에 임하여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그 무엇에 대해 이리저리 다각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의 의미로 구체화되면 바로 시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작시 과정에서 시의 의미 탐색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내면에 축적된 학문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의 토대 위에 의미 탐색에 주력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동하는 시의 경지로 표현하여 쓰고자 하였던 시는, 결국 ‘나는 조선인, 즐겨 조선의 시를 지으리’⁷⁶⁾라고 노래한 데서 보다시피 조선의 현실에서 빚어진 조선인의 마음이 깃든 조선시였던 것이다. 시

73) 我謂作詩者 亦必先有詩之基焉 詩之基 其人之胸襟是也 有胸襟 然後能載其性情智慧 聰明才辨以出 隨遇發生 隨生卽盛 (葉燮, <原詩>)

74) 爲詩 須要多讀 以養其氣 多歷名山大川 以擴其眼界 宜多親名師益友 以充其識見 (何世璵, 『然鐙紀聞』)

75) 주 18) 참조.

76)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주 18)의 시)

의 의미 탐색의 귀결은 그에게 있어 조선인의 마음이 깃든 조선의 시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쓰고자 하였던 조선시는 시의 의미 탐색의 결과로 얻어낸 그의 진정에서 우러난 참다운 의미 곧 眞意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明의 薛瑄도 시문은 진의를 위주로 한다고 하였는데,⁷⁷⁾ 이렇게 보면 그들은 중국이나 우리의 시학에서 좋은 시를 쓰기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진의를 얻기 위한 의미 탐색의 단계가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중국의 葉燮도 작시의 실마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는 반드시 먼저 사물에 접촉하여 마음을 일으켜 의미를 탐색한 다음 그것을 시어로 표현하고 모아서 시구를 만들며 부연하여 한 편의 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물에 촉발된 바가 있어 흥취를 일으킬 때는 그 의미나 시어나 시구들이 허공을 가르며 생겨나니 이는 모두가 無에서 有가 되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것을 따라서 마음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시에 표현되면 감정이나 경물이나 人事를 각각 묘사한 것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⁷⁸⁾ 이로 보면 그가 밝힌 작시의 실마리도 역시 의미 탐색의 결실로 얻어낸 시의 의미에서 찾아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로 시에 표현된 것은 감정이나 경물이나 인사를 묘사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의미 탐색의 소중한 결실임을 그는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탐색의 소중한 결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시의 의미를 얻고자 시인들은 작시의 길을 내달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역시 중국의 陳子龍(1608~47)은, 작시에 있어서 큰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시대 상황을 풍자하지 못하며, 비슷한 사물을 끌어와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가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비록 시가 교묘하게 꾸며졌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⁷⁹⁾ 이렇게 작시 과정에서는 의미 탐색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며 그 결실로 성정과 풍속의 아름다움이나 시대를 풍자하는 의미의 시 정신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77) 凡詩文 皆以眞意爲主 (薛瑄, 『讀書錄』)

78) 原夫作詩者之肇端 而有事乎此也, 必先有所觸以興起其意, 而後措諸辭、屬爲句、敷之而成章. 當其有所觸而興起也 其意 其辭 其句 劈空而起 皆自無而有 隨在取之於心 出而爲情 爲景 爲事 (葉燮, 앞의 글)

79) 夫作詩而不足以導揚盛美 刺讖當時 記物聯類而見其志 (중략) 雖工而余不好也 (陳子龍, <六子詩序>)

생각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중국이나 우리의 고전 시학에서 한편의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던 것이 시 의미의 탐색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시인의 내면에 축적된 학문이나 경험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진실된 마음의 바탕 위에 끊임없는 의미 탐색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세상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담긴 좋은 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맺음말

의미 지향의 시학 양상 가운데서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 의미 중시의 시평,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들의 실제 내용들은 중국 시학의 영향을 토대로 변용되어 나타나 있었으며, 특히 우리 한시가 개념의 시, 정신의 시로 이어내려 올 수밖에 없었던 여건 속에서 시의 의미를 중시하는 시학은 더욱 비중 있게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설의와 언외의의 시론에서는, 시의 의미 설정의 어려움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외의의 함축미 구현에 노력한 양상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미 중시의 시평에서는 여조에서부터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시학의 전 과정에서 시평의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 시의 의미의 분석과 평가에 따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평가들은,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인의 내면에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등의 다방면에 걸친 학문을 습득하고 세상의 견문을 두루 익히며 사우와 더불어 식견을 채우는 한편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널리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은 다음 그러한 것들을 작시의 기반으로 작시의 실마리로 삼아 시의 의미 탐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 편의 좋은 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의미 중시의 시론의 양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風教, 性情, 理氣, 妙悟, 用事, 鍊琢 등등 다양하게 열거할 수 있겠

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우리 시학사의 보완에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평의식이나 작가론 작품론의 검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평의 양상은 물론이고, 특히 시의 감상과 품평의 결과로 그 미의식을 찾아나가는 風格이나 학시의 원류를 찾거나 동일한 미의식의 근원을 찾아 작가와 작품 경향을 평가하는 源流批評 등에서 그 의미 중시의 시평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의 비평가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이나 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이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의미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한편, 이미지나 전달하려는 주제, 句와 聯의 단위에서 설정하려는 수사적 의미망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 탐색의 작시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작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작시의 실제에서의 의미 탐색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정리하는 일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미 중시의 시학의 범주가 워낙 광범위한 까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여 그 전체적인 양상을 정리해나가는 일도 필요할 것이며, 각각의 양상별로 중국 시학과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는 일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歐陽修, 『六一詩話』
 金祖淳, 『楓臯集』
 南公轍, 『金陵集』
 白居易, 『文苑詩格』
 司馬光, 『續詩話』
 謝榛, 『四溟詩話』
 徐居正, 『東人詩話』
 徐命膺, 『保晚齋集』
 徐寅, 『雅道機要』
 薛瑄, 『讀書錄』
 葉燮, <原詩>
 成三問, <八家詩選序>
 申景濬, 『詩則』
 申欽, 『晴窓軟談』
 沈德潛, 『說詩晬語』
 楊萬里, 『誠齋詩話』
 嚴羽, 『滄浪詩話』
 王文祿, 『詩的』
 王夫之, 『薑齋詩話』
 王士禛, 『漁洋詩話』
 魏慶之, 『詩人玉屑』
 柳夢寅, 『於于野談』
 劉放, 『中山詩話』
- 尹春年, 『詩法源流體意聲三字註解』
 , <詩法源流序>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白雲小說』
 李德懋, 『清脾錄』
 李宜顯, 『陶谷集』
 李瀛, 『星湖先生全集』, 『星湖僊說』
 李濟臣, 『清江詩話』
 任環, 『玄湖瑣談』
 張表臣, 『珊瑚鉤詩話』
 丁若鏞, 『與猶堂全書』
 周敦頤, 『周濂溪集』
 陳子龍, <六子詩序>
 陳衍, 『石遺室詩話』
 崔滋, 『補閑集』
 何世璠, 『然鐙紀聞』
 許筠, 『惺所覆瓿稿』, 『惺叟詩話』
 洪萬宗, 『小華詩評』, 『詩話叢林』
 洪良浩, 『耳溪集』
 洪奭周, 『淵泉集』

2. 단행본

-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유약우 저, 이장우 역, 『중국시학』, 동화출판공사, 1984.
 이병환,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흥성사, 1979.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 태학사, 2001.

-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2001.
정요일, 『한문학의 연구와 해석』, 일조각, 2009.
정요일,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주임생, 『시론분류찬요』, 대만상무인서관, 1971.

3. 논문

- 김성기, 『이제현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144면.
성범중, 『한국 한시의 의경 설정 방법과 양상에 대한 언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82면.

Study on the Art of Poetry in Meaning-Aim

Chung, Dae-lim

In this study, it is to seek critical discussions aimed at meaning of poetry that resolved around 'an essay on poetry', 'criticism of poetry', and 'versification'.

In an essay of poetry of 'setting up meaning' and 'Eonoeu', it mentioned a difficulty of setting poetry's meaning. So we can find aspects that focused on convey of poetry's implicative meaning.

In meaning-series view of criticism, it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f poetry is complying analysis and evaluation of poetry's meaning.

Also, In versification of meaning-research, it said that we have to accumulative knowledge, enlarge our experiences, and make attitude to love people with open mind to the world. And then,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research meaning of poetry. So we can write a good poem.

Keywords : meaning(意味), aim(志向), the art of poetry(詩學), eonoeu(言外意), versification(作詩)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계재결정: 2012. 11. 20
